

# 인생의 위기 앞에서

-해피데이전도축제 소그룹6-

## 【말씀 나누기】

사람은 살아가면서 자신의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위기를 당할 때가 있다. 성경에는 자연의 힘 앞에서, 죽음의 공포에 휩싸인 사람들과 자신의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중병에 걸린 절망적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그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돕는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전도자의 역할을 포기하거나 방관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귀한 사명을 망각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오늘도 인생의 위기 앞에 있는 자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자.

### 1. 마태복음 8장 23절-27절을 읽고 아래의 물음에 답해봅시다.

=> 23.예수께서 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그를 따라갔다. 24.그런데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물결에 막 뒤덮일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 25.제자들이 다가가서 예수님을 깨우고서 말하였다. "주님, 살려 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26.예수께서 그들에게 "왜들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하고 말씀하시고 나서,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다. 27.사람들은 놀라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 1) 본문을 통해 배워야 할 자세에 대해 말해봅시다.(마 8:24-25)

-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도 고난이 있을 수 있다.
- 예수님은 평안하셨고, 제자들은 불안해했다.
-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믿음이 적었기 때문이다(26)
- 믿음이 적다는 말은 믿음이 약하여서 굳건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 등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이다.
- 믿음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과 동시에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누리는 삶이다.

=>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요 16:33)

(나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안해하며 염려하는 것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소그룹 후 기도) 불안과 염려의 요소들을 놓고, 하나님의 믿고 평화를 누리도록 기도합시다.

#### 2) 예수님은 거친 풍랑을 어떻게 해결하셨나요?(마 8:26)

- 꾸짖으셨다. 이는 말씀의 권위로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음을 이야기 한다.

#### 3) 예수님께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후의 반응에 대해 말해봅시다.(마 8:27)

- 사람들이 놀랐다. 더 나아가 존경과 의아해함을 나타낸다.

#### 4) 위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알 수 있나요?(마 16:16)

=>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 예수님은 자연현상을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임을 알 수 있다.
-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나눔) 당신을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합니까? 나누어 봅시다.

- 나의 신앙고백은 전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합니다.
- 나의 신앙고백이 분명해야만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님을 전 할 수 있습니다.

## 2. 마태복음 9장 1절-8절을 통해 다음 내용을 살펴봅시다.

=> 1.예수께서 배에 오르셔서, 바다를 건너 자기 마을에 돌아오셨다. 2.사람들이 중풍병 환자 한 사람을, 침상에 누인 채로, 예수께로 날라 왔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기운을 내라, 아이야. 네 죄가 용서받았다." 3.그런데 율법학자 몇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고 속으로 말하였다. 4.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 속에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느냐? 5.'네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 6.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들이 알게 하겠다." 그리고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일어나서, 네 침상을 거두어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하시니, 7.그가 일어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8.무리가 이 일을 보고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이런 권한을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 1) 먼저 믿는 자가 해야 할 일에 대해 살펴봅시다.(마 9:2, 막 2:3-4)

=> 그 때에 한 중풍병 환자를 네 사람이 데리고 왔다. 무리 때문에 예수께로 데리고 갈 수 없어서, 예수가 계신 곳 위의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중풍병 환자가 누워 있는 자리를 달아 내렸다.

(막 2:3-4)

-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 오는 것이다.
- 이를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
- 이들은 예수님께 중풍병 환자를 치유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었다.
- 그래서 네 사람은 문제(무리들)를 뚫고 예수님께 중풍병 환자를 데리고 간다.

(나눔) 당신의 예비신자를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데 있어서 가로막는 문제가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소그룹 후 기도) 문제 해결을 위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않는 복음을 열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 2) 예수님은 중풍병을 어떻게 해결하셨나요?(마 9:6-7)

- 권세와 능력의 말씀으로
-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있음을 확신해야 한다.

=>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온갖 허약함을 고치게 하셨다.(마 10:1)

=>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막 16:17-18)

(소그룹 후 기도) 각자의 예비신자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 3. 오늘 말씀을 통해 느낀 점과 결단한 것을 말하고,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자.

태장성결교회 <http://taejang.org>